



서울의료원 전경

서울시립병원 시설 '확' 달라진다!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서비스, 쾌적한 시설은 '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시립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수준도 웬지 그저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은 덜어도 된다. 새롭게 문을 열거나, 리모델링을 거친 병원이 속속 선보이면서, 시립병원의 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동'에 새동지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이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연 데 이어 보라매병원도 리모델링을 마치는 등 시립병원이 최신 현대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겨 문을 연 **서울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3층 623병상 규모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건물로 지어진 8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종합시립병원이다.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77년 '시립 강남병원'으로 출발한 서울의료원은 고급 의료시설이 모두 강북 지역에 치중돼 있던 당시, 허허벌판이던 강남구 삼성동에 지어져 30여 년간 의료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강남 발전에 따라 다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강북에 균형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원 이전을 추진했다. 서울의료원은 기존의 저렴한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축병원에는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 발생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PET-CT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기존의 낙후된 시립병원의 모습을 개선했다.

서울 서남권 의료 책임지는 '서남병원'

지난 5월 양천구 신정동에 문을 연 시립 **서남병원**도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서남병원은 지하4층, 지상8층, 350병상 규모로 건립되어 그동안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했던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교수진이 주축이 되어 시립병원의 저렴한 진료비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남병원은 또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병상 중 다인병상을 91%로 늘렸으며 모든 병실에 전동 침대 사용, 각 층마다 기계 욕조실 설치, 치유정원 등을 두어 환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였다.

서남병원은 노인성질환의 전문 진료 및 지역 내 노인보건의료센터 연계를 통한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등 민간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진료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소외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남병원과 북부병원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이 서비스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에서는 즉시 치료 의뢰서를 발급하여 서남병원 또는 북부병원에 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리모델링 마친 보라매병원 질 높은 서비스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은 서울의대 교수진의 진료역량과 의료소비자의 수요를 접목시켜, 질환별로 특화된 16개 전문진료센터에서 최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갑상선센터, 당뇨내분비센터, 폐센터 등을 운영하여 통합적 치료서비스와 함께, 환자가 스스로의 질병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열린당뇨교실',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첨단 장비로 정밀한 시술이 가능한 관절·척추전문센터와 유방선



터는 원스탑시스템 구축으로 진료-검사-상담 및 당일수술 당일퇴원이 가능하며, '90분 이내 응급수술'을 목표로 하는 심혈관센터는 365일 24시간 서울의대 교수들이 상주하고 있다.

시립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급여수가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감면을 통해, 향후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암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사랑공모전 응모해볼까?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사랑공모전이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다. '서울의 희망'을 주제로, 이야기부문(에세이), 동영상 UCC, 웹툰 3개 부문에서 모집한다. 올해는 별도로 운영됐던 뉴미디어부문과 이야기부문의 공모를 합쳐 모집 분야를 더욱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응모 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상금은 총 3,600만원이다.

부문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스토리(수기)				
영상 UCC	각 1편 3백만원	각 2편 2백만원	각 3편 1백만원	각 10편 2십만원
웹툰				

- 응모방법
WOW서울 공모전 페이지 접수(<http://wow.seoul.go.kr>)
- 문의
시민소통담당관 731-6810
뉴미디어담당관 731-6379



▲서남병원 전경



▲서울의료원 야외공원



▲서남병원 영상의학 MRI촬영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로 돌려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 참여대상 : 가정 또는 단체(업무·상가건물, 학교, 아파트단지 등)
- 참여방법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 문의처 : 국번 없이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에코마일리지

검색

